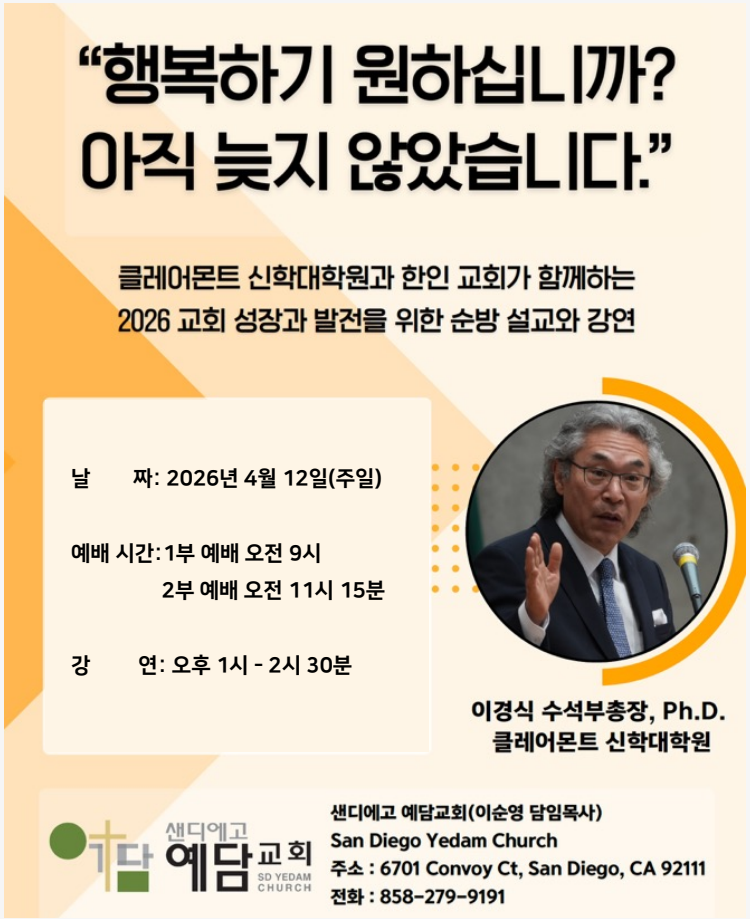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4월 호)

2026년 4-6월 남가주 한인교회 순방 설교 및 강연, 4월 시작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국제협력처는 한인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이경식 수석 부총장의 남가주 순방 설교 및 강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역은 모든 강사비가 CST 한인 학생 장학금으로 적립되는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순방 일정:

4월 12일: 샌디에고 예담교회 (이순영 목사)
5월 3일: LA연합감리교회 (안정섭 목사)
5월 17일: 예수동행교회 (이상영 목사)
5월 24일: 나성금란교회 (전재홍 목사)
6월 14일: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
6월 21일: 윌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7월 12일: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추가 가능 일정:
아직 방문이 가능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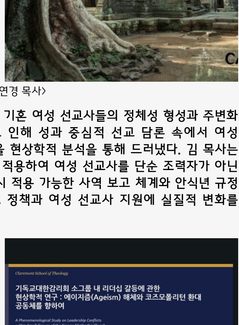
4월 19일
5월 10일
5월 31일
6월 28일

순방 설교 및 강연에 관심이 있는 교회와 목회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수석 부총장
연락처: 626-616-2478
이메일: slee@cst.edu

2026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7명, 구술 시험 통과!

2026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7명의 한인 학생들이 3월에 구술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연구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심층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각자의 연구 주제에서 실질적 통찰과 목회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7명 모두 5월 19일 학위 수여식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앞으로 학문적 연구와 목회적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선교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김연경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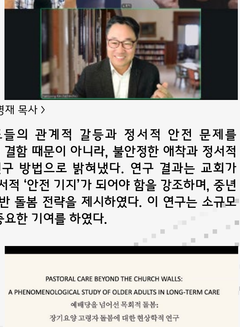
김연경 목사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40대 기혼 여성 선교사들의 정체성 형성과 주변화 경험을 탐구하였다. 연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성과 중심적 선교 담론 속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사역 공백'으로 오해받는 과정을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드러냈다. 김 목사는 상호의존성과 공정한 환대의 신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여성 선교사를 단순 조력자가 아닌 '주체적 동역자'로 재정의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역 보고 체계와 안식년 규정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선교 정책과 여성 선교사 지원에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사진: 이주영 목사>

이주영 목사는 한국 감리교회 소그룹 내 리더십 갈등과 구조적 요인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연령 위계와 역할 기대가 소그룹 내에서 갈등과 소진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질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상호의존적 공동체 모델과 코즈모폴리턴 환대 기반 소그룹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목사는 소그룹 내 역할 분산, 감정 노동 인식, 돌봄 순환 구조 등 실질적 목회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공동체적 책임과 참여를 강화했다.

<사진: 최진모 목사 >

최진모 목사는 3040 청장년 세대의 교회 내 관계적 갈등과 신앙적 소진을 탐구하였다. 연구는 권위주의적 구조와 기능적 도구로서 청장년 세대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과 영적 고갈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최 목사는 상호의존성과 환대 신학을 토대로 '함께 만드는 신앙의 숲'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취약성을 공유하고 서로 지탱하는 안전한 돌봄 구조를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3040 세대가 공동체의 주체적 동역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실천적 목회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진: 이규성 목사 >

이규성 목사는 한국 농촌 교회의 노인 성도 참여형 설교를 주제로 연구하였다. 연구는 농촌 교회 내 노인의 주변화와 에이지즘 경험을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으로 탐색하였으며, 노인 성도들이 설교 준비와 실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하여 상호의존적 신앙 공동체를 구축하였다. 연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신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설교를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공동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목회적 도구로 확장하였다.

<사진: 이규운 목사 >

이규운 목사는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국가 상징 내면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 목사는 '태극기'와 '성조기'와 같은 국가 상징이 단순한 정치적 기호를 넘어 신앙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는 사회적 소외와 과거 트라우마가 신앙과 결합하며 형성되는 독특한 내면화 과정을 조명하였으며, 이를 가다머 해석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노년층 신앙의 동기와 의미를 '존재 증명을 위한 갈망'으로 새롭게 이해했다. 본 연구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한국 교회에 공감적 목회와 화해적 담론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진: 인병재 목사 >

인병재 목사는 소규모 교회 내 중년 성도들의 관계적 갈등과 정서적 안전 문제를 탐구하였다. 그는 성도 간 상처가 개인의 성격 결함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애착과 정서적 안전기지의 부재에서 비롯됨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교회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성도들에게 영적, 정서적 '안전 기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중년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화해 모델과 애착 기반 돌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소규모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회복과 목회적 돌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사진: 김혁교 목사 >

김혁교 목사는 장기요양 등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돌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삶과 신앙 경험을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조명하고, '건강 중심의 교회 문화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죽음'과 '영적 고립'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상호의존성과 공정한 환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노인을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닌 공동체의 동역자로 재정의하고, 방문 돌봄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의 목회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7명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들은 각기 다른 연구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유와 회복, 변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실천적 신학과 목회적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인학생회 졸업식 및 종강모임

종강모임 : 2026년 5월 18일 (월) 오후 5시
장　　소 : Hodori Korean Cuisine
7315 N. Figueroa St., Suite 102
Los Angeles, CA 90041

졸 업 식 : 2026년 5월 19일 (화) 오후 3시
장　　소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문　　의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국제협력처
kef@cs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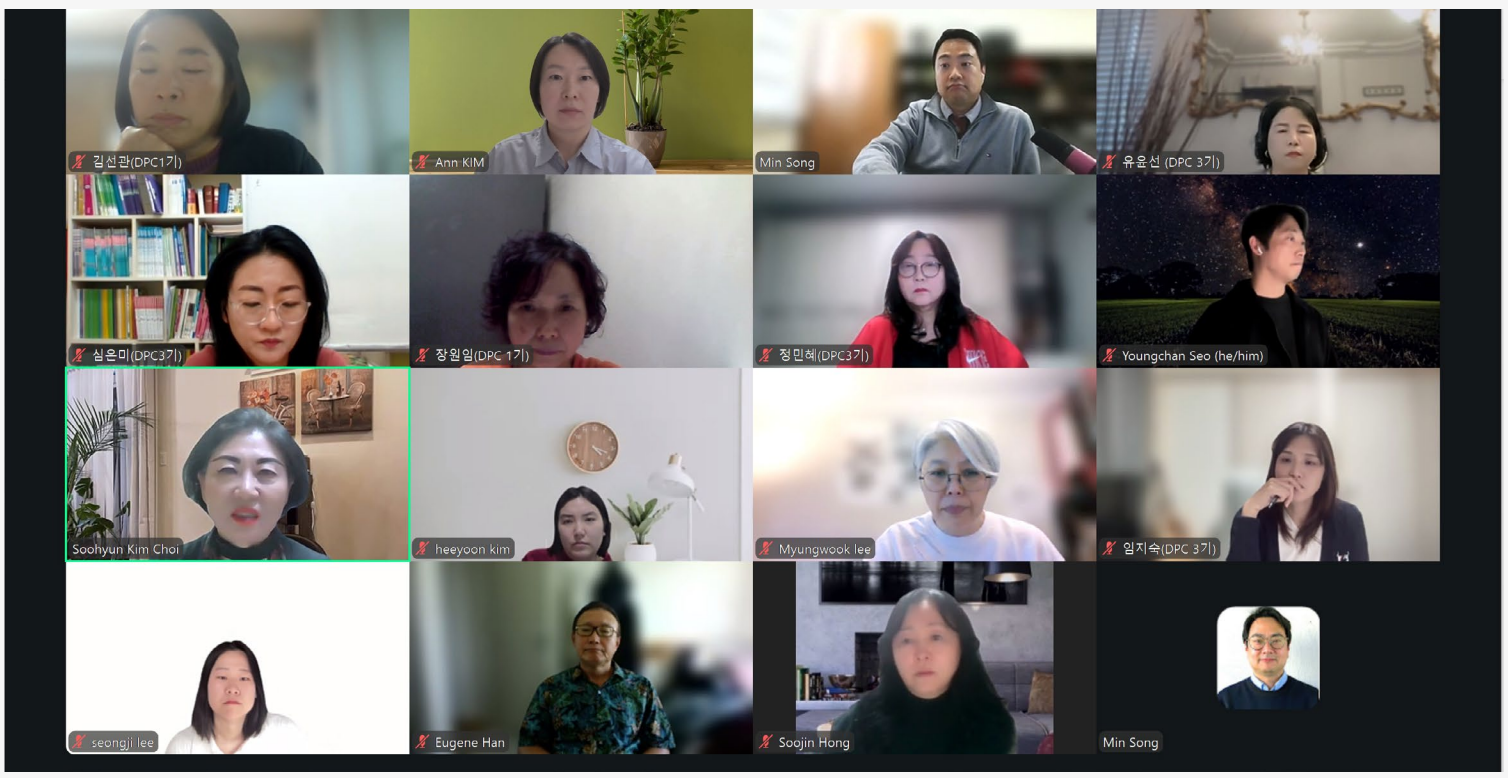
- **다 함께 모여 한 학기 동안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원활한 모임 준비를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4월 중 보내드릴 이메일을 통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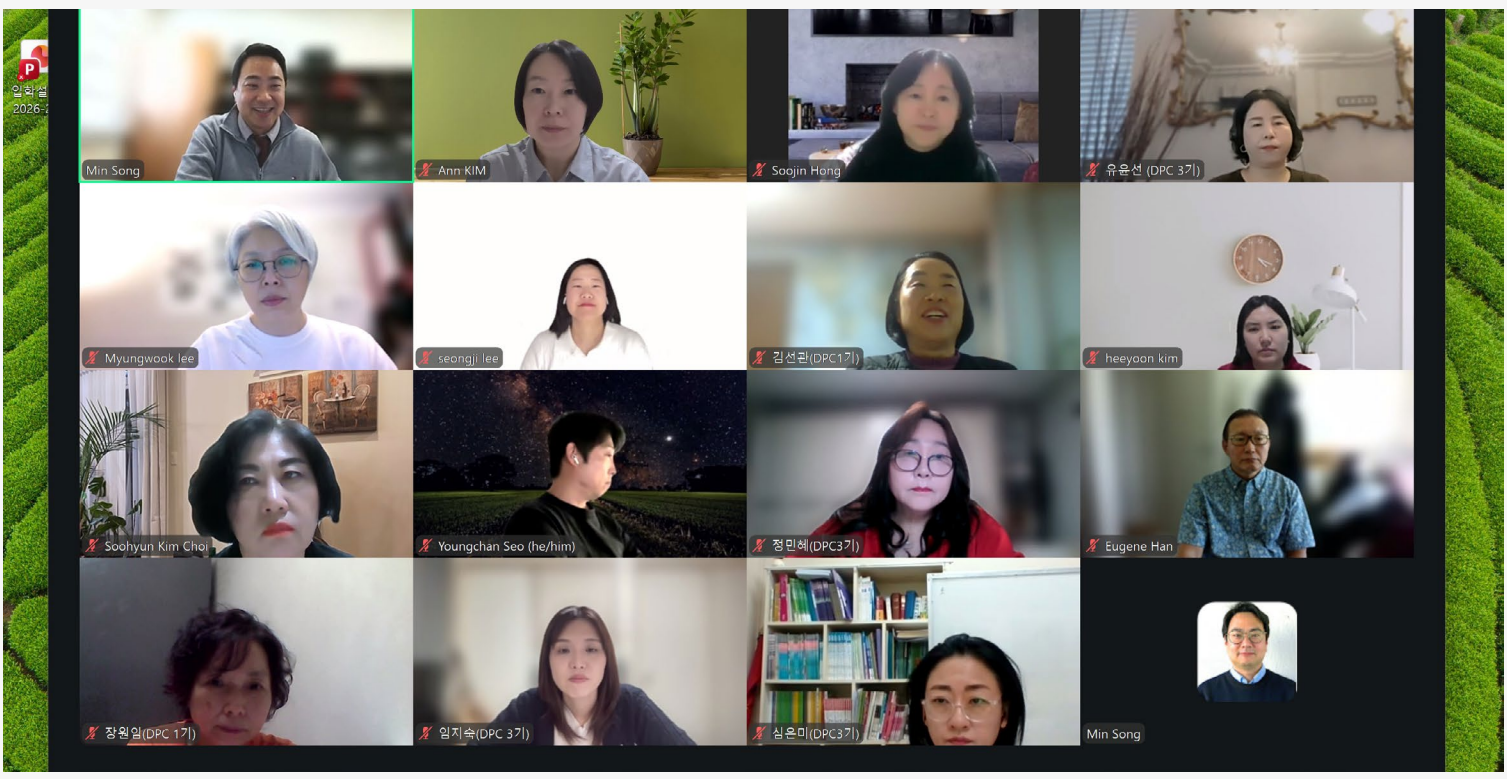
임상과 연구를 잇는 배움: DPC 집중수업 주간 – 송민환 교수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봄학기 DPC(전문상담박사) 프로그램의 두 번째 집중수업 주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총 12명의 DPC 학생과 2명의 PhD 학생이 참가한 이번 수업의 주제는 상담 연구 방법론(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으로, 과학자-실무자(Scientist-Practitioner) 모델에 입각하여 상담가로서의 임상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수업에서는 상담 실천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과학적 엄밀성과 실천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이론과 실제를 다루었다. 또한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 과정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수업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배우고 이를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김지훈 박사(DPC 겸임교수)를 초청하여, 양적 연구 방법론으로 수행된 연구를 비판적으로 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종일 이어지는 강도 높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높은 열정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수업에 임했다. 이러한 모습은 영성 상담 분야에서 수많은 임상가와 학자를 배출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이어온 CST의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세계 각지의 임상과 연구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문상담 및 실천신학 박사들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사진: 송민환 교수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 〉

배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여정

〈사진: 임지숙, DPC 3기생〉

저는 클레어몬트 대학원 전문상담박사과정(DPC)에 재학 중인 임지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가을 학기에 입학하여 어느덧 2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Human Relationships & Counseling: Family & Gender와 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수업을 통해 이민자들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주의 상담과 관계문화치료 관점을 배우며 상담자로서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현재 일본 선교지에서 섬기고 있는 한인 성도님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 방법 수업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고, 배움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큰 감사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시간 알찬 강의로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교회와 지역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학기가 기대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움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강신욱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임용빈 장로
이창순 목사
이삼휘 장로
박정은 박사
김웅민 목사

*성함은 기부일자 순 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4월 1일 기준): $93,485

- KEF 잔액(1990.03 - 2026.04): $2,511,654
- KLS 잔액(2018.10 - 2026.04): $873,483
- General Fund(2024.03 - 2026.04): $13,728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기준 -

개인 후원	단체 후원
이병준 회장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이상영 목사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챤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본 명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3일 기준): $14,200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